

## 박광태 前 광주시장 재임기간 의문의 상품권 25억 구입했다

### 현대백화점 외상대금 소송서 드러나

박광태 전 광주시장 재임 시 광주 시가 시장 및 실·국 업무추진비 신용 카드로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만 7년간 25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이 곳뿐만 아니라 다른 백화점에서도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상품권 구입 대금은 수십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백화점 운영 업체가 지난해 광주시로부터 일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혐의 강태광 전 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사 송원측은 지난 2011년 4월 강태광 전 시장 등 3명을 상대로 상품권 판매대금 5억82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백화점은 소장에서 "2004년 당시 광주시 비서실에 근무하던 공무원 이모(47·6급)씨의 형이 백화점 내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는데, 이씨의 형이 법인카드 5~10매를 가져와 매달 500만~1000만원 어치의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구입해왔다"고 주장했다. 백화점측은 "이후 2008년 하반기~2009년 상반기에는 매달 한 두차례 15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규모가 계속 커졌고, 거래는 2010년 초까지 이어져 모두 25억원 상당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규모도 커지면서 이씨의 형에게 외상으로 상품권을 내주기 시작했으며, 최초 1000만원에 불과했던 외상거래 규모가 2010년 초에는 수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법정공방 과정에서 이씨의 형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5억820만원 어치의 상품권 가운데 2억원 가량을 현금화해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썼다고 인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서실에 근무했던 이모(47)씨는 "당시 시장 및 각 실·국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VIP 선물용으로 사용했다"며 "상품권 구매는 다른 백화점에 시도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소송중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미 상품권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겠다"며 "일

부 의문은 있지만 소송 결과를 지켜 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2003~2007년 박 전 시장의 업무추진비 13억3600만원의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구입 액수는 전체의 10%인 1억58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가 제한돼 다른 법인카드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지난 2008년 6월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실패 직후부터 '2015 대회' 재유치에 나서는 과정에서 거래 규모가 급증한 점, 상품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용처에 대한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 30일 새벽 신안군 흥도 북서쪽 72.4km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단속요원에게 흥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을 나포하기 위해 목포해경 3009함 특공대원을 태운 고속단정이 접근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 중선원 또 흥기 난동

### 흥도 해상 단속반 4명 부상...목포해경 9명 체포

불법 어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이 한국 단속요원에게 해머 등 흥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고 도주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관련기사 6면> 목포해경은 지난 30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4명에게 부상을 입고 도주하던 227기 중국 어획물운반선 철육 어운호를 나포해 선장 등 9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과 선원들은 이날 새벽 2시30분경 신안군 흑산면 흥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김정수(43)씨 등 4명에게 흥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이 어선을 정선시간 후 승선하다가 갈과 해머, 갈고리, 낚 등을 휘두르는 중국 선원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 4명은 중국선

원들이 휘두른 흥기에 맞아 머리와 팔 등을 다쳤으며 승선을 시도하던 화정우(32)씨는 바다에 추락했다가 동료에게 구조됐다. 거센 저항 후 달아났던 이 중국 어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3009함에 의해 이날 새벽 4시45분경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72.4km 해상에서 나포됐다. 해경은 철육어운호 선장과 선원 등 9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목포=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 美 광우병 파동 육류 기피 불구 한우 소비는 늘어

### 가격은 떨어져...축산업계 소비 동반하락 불안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산을 비롯해 수입산 쇠고기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육류 기피현상이 일고 있지만 한우 소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산업 종사자들은 광우병 불뚱이 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한 대형마트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지난 25일 이후 축산물 소비가 급감했다. 미국산 쇠고기(-26%)와 호주산 쇠고기(-8%)는 물론 수입산 돼지고기(-37%)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광주지역 이마트 5곳(광주·광산·동광동·봉산·상무점)에서는 지난 주말(26~27) 등심(24.8%)·불고기(25.3%)·국거리(23.7%) 등 한우 매출이 광우병 파동 전 주

말(19~20일)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산 쇠고기(갈비살·83.2%)와 호주산 쇠고기(일반 갈비·95.4%)의 매출은 급감했다. 광우병 파동으로 한우 소비는 늘었지만 폭락한 소값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가격 정보에 따르면 호남권 도매시장의 경우 한우 1kg(1+등급) 전체 평균 가격은 광우병 파동 직전인 24일 1만6308원에 형성됐으나 27일 1만4643원으로 소폭 떨어졌다. 축산업계는 광우병 파동이 국내 축산물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산에 대한 불신이 쇠고기 소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광주지회 김집

중 회원은 "광우병으로 한우 소비가 늘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쇠고기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소값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지 않으면 광우병 공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 고속도로 휴게소·당구장서 담배 못 피운다

### 복지부 금연구역 확대...내달중 입법예고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당구장, 운동시설 등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담뱃값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의 크기도 담뱃갑 앞·뒷면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금연 구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람들이 붐비거나 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금연 대상을 넓히며 150㎡(약 45평) 미만 규모는 금연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6-중-9062호

##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된다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1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매표리 센터가)

심·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

한의학에서는 불면의 원인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눈다.

-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이 과하게 하여 비장(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산후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권태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 (2) 음허화동(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변비가 생기며 간혹 몽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 (3) 심담허겁(心虛虛怯) 몸이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매사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초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 (4) 간양상형(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경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 (5) 위중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끝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등에서 볼 수 있다.

### 불면증 치료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몸이 피곤할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신체중성이 심한 경우는 대증치료를 통해 신체중성을 우선 개선 시켜준다. 만약 정신질환의 경우는 질환 치료를 먼저 해야 하며, 노인인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다.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을, 음허화동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자탕이나 가미소요산, 심담허겁으로 오는 경우는 가미 온림탕을, 위중불화로 오는 경우는 향사양위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